

160803 베드로후서 강해 세번째 2:1-22

### 1-3 거짓 교사의 정체 및 속성

- 성도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짓 교사 곧 이단의 정체와 특성 및 이단의 사설 등에 논박 하고 있다.

` 이단의 공격목표 - 도덕적 탈선과 정통 교회에서의 이탈,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부인

` 베드로는 거짓 선생 곧 이단의 출현에 대해 예고한 후(1) 이단의 정체와 속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이단의 정체: 첫째 - 언제인지 모르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거짓 교사 노릇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이단, 곧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들이는 자이다. (1) 둘째 -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를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자이다(1)

` 이단의 속성: 첫째는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행위들을 일삼으며 (2) 둘째는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이 지어낸 사설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다 (3)

### 4-10a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

베드로의 제시: 첫째 - 천상에서 하나님께 대해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작정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노아 홍수 심판때에 모든 불의한 자들이 홍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심판 받지 않은 자들은 노아의 식구들 뿐이었다.

셋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뜻을 제외한 모든 불의한 자들이 다 멸망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근거해서 볼 때 불의한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 10b-19 거짓 교사의 불의

이단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필연적인 이유들로서 이단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 언급한다.

첫째, 이단은 본성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10b-12) 때문에 훨씬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위치를 넘지 않고 본분을 지키는데, 이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을 훼방하며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헐뜯는다는 것이다.

둘째, 이단은 도덕적으로도 극도로 방종하여 세상 연락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쉬임 없이 행하되 음심이 가득하며 불의의 샅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13-15)

셋째, 이단은 과거의 죄악된 행위들을 버리고 이제 막 새로운 마음을 가리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려는 초신자들을 미혹하여 다시 육체의 방탕과 타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17-19)

#### 20-22 거짓 선생의 미혹에 대한 경계

베드로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진 자들의 비참한 최후 상태를 개와 돼지에 비유하여 비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 이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